

## 부 고

메리 프란첼로 MARY FRANCELLO 수녀

ND 4333

애그니스 바바라 오트 Agnes Barbara ORTH

(2011 년에 사망한 메리 윌프리드 수녀와 친자매)



미국, 켄터키, 커빙턴 티없으신 성모성심 관구

출 생	1926 년 8 월 7 일	오하이오 신시내티
서 원	1946 년 8 월 13 일	켄터키 커빙턴
사 망	2018 년 6 월 28 일	켄터키 커빙턴
매 장	2018 년 7 월 10 일	켄터키 커빙턴

메리 프란첼로 (애그니스 바바라) 오르트 수녀는 1926 년 8 월 7 일, 피렐과 바바라 오르트의 사이에서 태어났다. 네 자녀 중 둘째였다. 부모의 육성하는 신앙, 강한 신앙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 냈다.

애그니스는 노트담 수녀들이 가르치던 켄터키 알렉산드라의 성모 승천 초등학교에 다녔다. 애그니스는 어린 나이였을 때 수도 성소에 끌렸다. 성 요셉 하이츠에서 아스피랑이 되기로 결심하고 노트담 아카데미에 다녔다. 노트담 수녀회에 입회한 다음 1944 년에 노트담 아카데미를 졸업했다. 그리고 1946 년 8 월 13 일에 첫 서원을 받았다.

프란첼로 수녀는 빌라 마돈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자비에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. 커빙턴 교구, 신시내티, 버밍햄, 알라바마에서 초등부 교육 사도직을 시작했다. 나중에는 이 학교 중 여러 곳에서 교장으로 사도직을 행했다. 많은 이들이 수녀를 커빙턴의 천주의 모친 학교와 켄터키 벨뷰의 성심 학교에서 시각장애아들을 가르친 최초의 교사 중 한 명으로 기억할 것이다. 수녀는 학생들에게 독립성과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며 점자로 읽고 쓰도록 도왔다.

62년간 교직에 몸담은 다음, 은퇴했지만 루르드 홀 성당에서 제의실 담당과 활동 프로그램, 보조, 재봉, 기도 사도직으로 노트담 수녀회를 위해 공동체 봉사를 계속했다.

2018 년 6 월 28 일, 메리 프란첼로 수녀는 사랑하는 수녀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평화롭게 하느님께서 계신 고향으로 갔다. 부모와 친 자매인 메리 윌프리드 오르트 수녀, SND 와 형제인 칼 오르트가 수녀를 앞서 세상을 떠났다. 그리고 수녀 뒤에는 다른 형제 안토니 오르트와 많은 조카들이 남았다.

메리 프란첼로 수녀의 장례 미사는 2018 년 7 월 9 일, 관구 본원 성당에서 있으며, 매장은 그 다음날 수녀원 묘지에서 이루어진다.

메리 프란첼로 수녀의 가장 큰 특징은 만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미소와 따뜻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수녀는 그 온화하고 사랑에 넘친 방식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.

수녀가 영원토록 하느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화로 살아가기를.